

우주

FCC의 C밴드 경매가 갖는 의미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FCC의 C 밴드 경매가 갖는 의미

지난 23 일(현지시간 22 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상단 C 밴드(3.98~4.14GHz) 16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경매에 부치는 안건을 승인했다. C 밴드는 위성통신에 오랫동안 사용돼 온 3.4~4.2GHz 일대의 중대역 주파수로, 전파가 멀리 도달하면서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커버리지와 용량의 균형이 가장 좋은 5G-6G용 대역으로 꼽힌다. 이번 결정은 위성사업자들이 방송 중계 등에 쓰던 대역을 비워 이동통신사에 넘기는 작업으로, 지난 2020 년 시작된 1 차 C 밴드 경매(3.7~3.98GHz, 280MHz)와 합치면 총 440MHz의 연속된 중대역이 대상이 된다.

C 밴드 경매의 구조를 살펴보면, FCC가 해당 대역의 지상 이용 면허를 경매에 부치면 버라이즌, AT&T 등 이동통신사가 이를 낙찰받고, 원래 그 대역을 쓰던 위성사업자들은 정해진 시한까지 대역을 비우는 클리어링을 수행한다. 위성사업자는 좁아진 대역에서 기존 방송-통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위성을 발사하고 지상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대가로 이전 비용 보상과 함께 조기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1 차 경매에서는 낙찰 총액이 약 811 억 달러에 달했고 위성사업자들에게 약 97억 달러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이번 2차 경매는 2027년 7월까지 진행되며, 위성사업자들은 2030년 12월까지 대역 이전을 마쳐야 한다.

이달 28일에는 인센티브 배분 규모도 공개됐다. 총 63억 달러 가운데 SES가 56억 달러로 전체의 89%를 가져가고, 유텔셋이 5 억 400 만 달러, 텔레셋이 1 억 8,900 만 달러를 받는다. SES는 지난해 인텔셋 인수를 완료하면서 미국 내 C 밴드 권리 대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배분 비중 또한 크게 가져갔다. SES의 클리어링 비용은 신규 위성 조달·발사·보험·지상장비 교체를 포함해 약 36 억 달러로 추산돼 20 억 달러 수준의 순현금 유입이 예상된다.

이번 경매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침체됐던 정지궤도(GEO) 위성 산업에 다시 한번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스타링크 등 저궤도(LEO) 위성통신망이 급성장하면서 GEO 위성 발주는 수년째 부진했는데, 1 차 클리어링 당시 SES와 인텔셋이 대체 위성 13 기를 발주한 바 있다. 이번에도 SES가 C-Ku 밴드 하이브

한주 간 주요 뉴스

중국 스타트업, 상업 우주상황인식(SSA) 위성망 구축 자금 조달

일본 H3 로켓, 아이스페이스(space) 차기 달 착륙선 발사 담당

SES, 라탐(LATAM)항공 항공기 60대에 기내 위성통신 공급

L3Harris, 방산 수요 급증에도 미사일 사업 IPO 2027 년으로 연기

스페이스X, 군용 위성망 발사 계약 16억 달러 수주

NASA, 로먼(Roman) 우주망원경 연료 주입 완료... 8월 발사 준비

버진미디어 O2, 위성 다이렉트-투-디바이스(D2D) 서비스 전략 공개

유텔셋, 폴란드와 IRIS² 참여 MOU 세부내용 공개

리드 위성 5기와 궤도상 예비 위성 2기 등 총 7기의 발주를 예고했고, 유텔샷도 약 7억 5,000만 달러를 들여 이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두 번째 의미는 주파수 권리가 위성사업자의 핵심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로켓랩이 이리듐 인수로 전 세계에 라이선스된 L 밴드를 확보하고, 아마존이 1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스타 인수와 함께 위성 5,105기 규모 D2D 통신 위성망 발사를 신청하며 1.6-2.4GHz 대역 확보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주파수를 선점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기업가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전망이다.

주파수 대역별 주요 용도

구분	주파수 대역	주요 용도
L 밴드	1~2GHz	위성전화·항법(GPS)·IoT 등 저용량 통신 (이리듐, 글로 벌스타)
S 밴드	2~4GHz	이동통신 중대역, 위성 D2D 통신, 기상 레이더
C 밴드	4~8GHz	위성 방송중계 → 경매 통해 5G·6G 이동통신으로 재 배치 중
X 밴드	8~12GHz	군사 위성통신, 경찰·기상 레이더
Ku 밴드	12~18GHz	위성방송, 스타링크 등 LEO 위성 사용자 링크
Ka 밴드	26.5~40GHz	고속 위성 브로드밴드 (카이퍼, 비아셋), 대용량·강우 감쇠에 취약

자료: FCC, ITU,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